

탑골공원에서 진행된 3·1절 기념식... 문 대통령 '국난극복' 다짐

# “코로나 극복 힘, 100년 전 정신에서 비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거센 빗줄기 속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이 열린 탑골공원은 3·1 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적 현장이다.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던 3·1 운동의 발상지로 불린다.

기념식은 '세계만방에 고하야(世界萬邦에 고하야)' 주제로 열렸다. 102년 전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고했던 정신을 되살려, 선조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도전을 세계만방에 선언한다는 뜻이 담겼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독립선언서 낭독→헌정 공언→독립유공자 포상→대통령 기념사→기념공연→3·1절 노래 제창→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메이저리그(MLB) 야구 선수 류현진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통해 낭송하고,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 등 약 170여명이 부르는 애국가 제창 영상이 상영됐다.

독립선언서는 기념식 현장과 해외 각국에서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리말 수어로 순차 낭독됐다.

세계적 셀러스트인 흥진호는 '아리랑'과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열사 등을 추도하는 노래를 불러 부른 아일랜드 민요 '내니 보이'를 엮어 헌정 공연을 선보였다. 빗속에서 울려 퍼진 첼로 연주는 기념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독립유공자 7명에게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홍범도 장군의 아내 고(故) 단양 이씨와 아들 고 홍양순씨는 의병 활

동 등 공적을 발견해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홍 장군의 생존 유족이 없어 '여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 함'에서 근무하는 여명훈 중위가 대리 수장했다.

- 탑골공원,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낭독 등 3·1운동의 발상지
- 코로나19 거리두기 감안
- 50여명 소규모로 참석
- 예비의료인 6명 만세 선창
- 문 대통령 "자랑스러워"

독립선언서가 울려 퍼진 팔각정 한 가운데 오른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 국난 극복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이날 새벽부터 거센 비가 이어지면서 침와대는 장소 검토도 고려했다. 그러나 탑골공원에서 그대로 진행하자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현장에는 비를 막기 위한 임시 천막이 설치됐다.

문 대통령은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와 다자주의, 상상과 포용의 정신으로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곳 탑골공원에 는 위기

과 역경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이룬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는 선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합니다. 더 높이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 후에는 가수 정인과 매프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기념공연을 선보이고, 이어 전체 참석자들과 함께 3·1절 노래를 제창했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는 예비 의료인들의 선창에 맞춰 만세 삼창이 진행됐다. 국가적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다짐이 담겼다.

3·1 독립운동 전 해인 1918년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를 덮쳤을 당시, 방역 전선에 적극 나서줬던 의료진들을 위한 만세 삼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코로나 상황속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환자를 돌보려 했고, 우리 스스로 의료체계를 갖추려 했던 선대들의 노력이 참으로 가슴 깊게 다가온다"며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919년 3·1운동 당시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경성·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조선약학교 등 선배 의학도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후배 예비 의료인 6명이 만세 삼창을 선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애국가와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 및 정부 주요인사 등 50여명만 모였다. /유호상 기자

## 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공모 선정

농촌지역 자살예방 위해 올해 보급함 600개 확보

전북도가 농촌지역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보급함 600개를 확보했다. 도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지난날 2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 원 상당의 6,800개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받았고, 올해 지원받은 농약안전보관함 600개는 익산과 부안 2개 시·군 18개 마을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 보급할 마을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판전 달식을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은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농가마다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할 예정이며,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또한, 해당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은 시장·군수에게 '생명사랑지킴이' 임명장을 수여 받고, 생명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상은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와 해당 마을이장의 협조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공모사업이 자살예방사업의 마중물 역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올해까지 지원되는 농약안전보관함 7,400개에 대한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심리치유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 새만금유역 하수도시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점검

전북도가 2일부터 12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과 하수도 공사현장 72개소에 대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2~4월에 실시하던 국가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하반기로 미뤄져 자칫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른 안전 조치 일환이다.

점검대상은 새만금유역 상류지역 7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1일 처리량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 32개소와 공사 중인 하수관로 16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23개소, 면단위 하수처리장 1개소 등 총 72개소이다.

점검방법은 시설규모가 크고 준공된 지 오래된 하수처리시설과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하수도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현장 2개소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그 외에 시설은 시·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겨울철 얼어있던 녹으면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웅덩, 축대, 절개지 등의 파손 징후 여부 및 건축물 등의 지반침하 여부 등이다.

도는 시공 중인 하수도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사고발생시 대응 및 복구 태세 등도 국가안전대진단에 준해 꼼꼼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적 문제 등 중대한 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계획 등을 수립해 복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생활하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운동용 새만금해양수산공장은 '해빙기를 맞아 하수처리장과 하수도 공사 현장 일대의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며 "안전적인 생활하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개선과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수소전기 상용차 시대 '활짝' ... 법적 근거 마련

### 민주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소전기 상용차 연료보조금을 지원해 본격적인 수소상용차 시대를 열게 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발의한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날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를 친환경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수소·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앞당겨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이 법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 완주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파란불이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수소 전도사를 자임하는 김윤덕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

하고 있다"며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충이 꼭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의 통과로 친환경 경 수소에너지를 더 값싸고 쉽게 대중들이 이용하게 됐다"며 "미래 대한민국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수소 가격은 kg당 평균 8,500원선으로 서울과 부산 간 거리 약 400km를 환산할 경우 연료비가 약 3만5,000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 '나 홀로 출산' 시 출생신고 지원

### 민주 한병도 의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의원이 미혼모 등의 나홀로 출산 시 출생신고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의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다.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

가 지체되거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돼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시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

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나홀로 출산 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도의회 임시회 15일로 연기

###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후속 조치... 24일까지

전북도의회는 지난날 25일 사무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제 379회 임시회를 2주 연기한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제379회 임시회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지난날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감염자 접촉자들이 25일 부터 379회 임시회에 들어가면서 삼일위원회 개최 등 의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임시회를 조정하기로 했다. 379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학 예정정에 관한 질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의 심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도의회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날 25일부터 의회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를 소독하고 전면 폐쇄했다. 26일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으며, 의원들도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의회사무처 감염자 밀접접촉자 11명은 1차 검사에서 전원 음성인 나왔다. 이들은 3월 10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조사항목 69개로 확대·분석

전북도가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날 26일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생산단계 수산물의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사전에 부적합한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고자 '2021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는 생산단계 양식장 및 위판장과 HACCP 등록 양식장 중심으로 조사 물량을 120건(양식장 100, 위판장 20)으로 늘려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금지물질 등 조사항목을 69개 항목으로 확대해 분석한다. 조사대상은 총 14개 품종으로 양식장은 9개 품종(뱅장어, 메기, 미꾸라지, 향어, 횡다리아우, 동자게, 송어, 황어, 흰다리새우, 뽕)이다. 어획물은 5개 품종(김, 전어, 송어, 바지락, 꽃게)이다. 연구소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액체크로마토그

래프-질량분석기) 1대를 추가 구입해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안전성 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6단계를 거쳐게 되며, 조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발생 양식장은 '부적합 양식장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1년 중 2회 이상 특별 점검을 하고, 수산물약품 사용 교육 및 지도, 양식장 예찰을 강화해 미승인 의약품의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합관정을 받은 양식장에 대해서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소화·흡수·대사에 필요한 수산물 의약품 지원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을 통한 질병 예찰을 지원하는 등 부적합 발생 양식장과는 차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이 도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